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3월 9일 (제129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오늘이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의 아침 문안 인사다. 요즘이 인사의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 지인들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어젯밤에 통화까지 한 사람이 다음날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하긴 40년 가까이 나와 함께 했으니...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으니 어찌겠는가. 나는 생각이 깊다.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 기묘하기도 하시지.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고 하셨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고도 하셨지 않은가.

맞다. ‘내일’은 내 권한이 아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미래는 약속어음과 같아 불확실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새로 지으리라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 이 말씀은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놀라는 뜻이 아니다. 오늘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현금처럼 주어진 오늘을 잘 활용해야 하고, 값지게 쓰라는 말씀이다. 지금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충성하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줌을 아끼지 말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잠3:27-28). ‘내일 줄게’ 하지 말라, ‘내일 사랑하지’ 하지 말라, ‘내일 해야지’ 말라신다. 왜? 내일은 네가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고, 베풀고, 일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하자. 그러면 언제 가든지 후회 없는 삶이 되리라.

사랑은 귀찮아하지 않는 것이다

첫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내 식당으로 모였다. 라파엘(Rafael) 목사를 비롯하여 10년 전 산호세(San José) 집회를 배설했던 웅(Wong) 목사,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서 왔다는 흑인 목사 등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 흑인 목사는 뉴저지에 있는 자기 교회 교인이 3천 명이라며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초청하여 집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파엘 목사는 성공적인 집회에 매우 고무되어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마다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흑인 목사는 그 와중에도 전화통화를 하느라 수시로 자리를 벗어나곤 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웅 목사가 한마디 했다. 파킨슨병으로 몸도 불편

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랑은 귀찮아하지 않는 것이다.”

목사님의 목회 40년, 그 성공적인 목회를 이야기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목사님의 양무리를 향한 사랑이다. 아주 단적인 예라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코스타리카(Costa Rica) 산호세 집회에서도 그랬다. 예배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목회자들이 앞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뉴저지의 흑인 목사는 전화 통화, 나중에는 즐기까지 일반 성도라면 몰라도 목사라는 자가 예배 시간에 앞에 앉

셨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숙소에서 라파엘 목사의 가정을 위해 그의 딸 발렌티나(Valentina)를 가까이 앉히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가르치는 밤상머리 교육을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물에 비치는 것처럼(잠27:19)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발렌티나도 목사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곤 했다. 오죽하면 학교를 하루 빠지면서까지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을까. 귀찮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발렌티나는 학교에 가느라 볼 수 없었다. 목사님은 음성메시지로 격려했다. 라파엘 목사나 헤이셀



2025 코스타리카 산호세 집회 광경

하고 말도 어눌했지만 짧은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다.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그들에게 목사님 주위 자리를 내주고 맨 뒤에 앉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른다. 숙소에서 목사님이 그때 상황을 설명해주시니 알게 된다. 목사님 말씀하시길 라파엘을 비롯 젊은 목사들이 나뉘는 목회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웅 목사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목사님도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언술

아서 그런다는 것은 우리 교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예배 후에 자리에 앉아 세미나까지 진행하셨다. 한 말씀이라도 더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제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삶을 살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그 영혼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시간이니 목사님으로서는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고 끝낸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목사님의 목회 40년은 항상, 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Hazel)사모, 밥을 해주던 플로리(Flory)와 안드레아(Andrea) 집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우리가 봐도 목사님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로 ‘저들이 목사님을 참 많이 그리워하겠구나’ 생각됐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AI(인공지능) 시대니 뭐라 해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변할 수 없고, 인생사에 가장 소중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꿀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가슴 깊이 저려오는 시간이었다.

한은택 목사



산호세 리더세미나



라파엘 목사의 딸 발렌티나



집회를 마치고 목회자들과의 만찬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21~39)

영적 전쟁의 실탄은 성령충만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3:8).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마귀를 쫓으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야, 가라~!’ 하지 않으시고, ‘귀신아, 가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귀와 귀신의 관계를 알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 마귀의 종개요, 군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군사를 쫓아내면 왕도 힘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병사 없는 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항공모함도 물 없이는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으라고 난리를 치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직접 나가 싸우니까? 아니지요, 그 아래 있는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건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의 군사인 귀신을 우리 삶에 투입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귀신을 내어쫓아야 합니다.

성령충만이 영적 무제한 실탄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데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요 14:26).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일체이시니 곧 성령은 하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러니 귀신인들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같은 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1:25) 하시니 더러운 귀

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며 놀라고, 이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은 그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면 임합니다(행 2:38).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님과 같이 ‘귀신아, 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그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지?’ 하십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 원짜리 지폐를 아이가 내건, 어른이 내건 그 가치가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곧 성령은 귀신을 내쫓기 위한 영적 무기인 거죠. 총에 실탄이 충분히 장전되어 있어야 나를 해치는 존재가 나타나면 바로 쏠 수 있지요. 단체로 나타나도 다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은 소비용품입니다. 쓰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다시 채워놔야 합니다. 아니면 급하게 방아쇠를 당겨도 실탄이 안 나가요. 그러면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죽어나옵니다. 어떻게 채우냐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막 1:35).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이르러 저녁에 기도하셨고(눅 5:16),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습니다(마 14:23). 눈치채셨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충만, 영적 실탄

충족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막 9:29). 최신행 핸드폰이라고 한 번 충전

하면 평생 쓸 때까지 아닙니다. 아무리 고가의 핸드폰도 배터리가 닳고, 충전해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초고가 자동차라고 한 번 기름 넣으면 평생 달린답니다? 아니요, 그것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줘야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하신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니 늘 충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리카 집회에 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충만, 실탄 만땅이니 앓은병이가 와도, 병어리가 와도, 귀신이 들려 난리를 치는 자가 와도 뽕~ 하고 쏘면 되니까요. 영상으로 보셨지요? 찬양 중에도 귀신이 드러나고, 설교 중에도 귀신이 드러나 쫓아내는 것들요. 실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집회 전에 7시간씩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음날 집회를 위해 다시 7시간 기도하는 것도 소비된 만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집회 전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쏘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첫 대면에서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하심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심도 무기를 받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120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식일을 두 번이나 어겨가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행 2). 요즘 노량진교육관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실탄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와서 기도하여 실탄을 꽉 채우고 그걸로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귀신을 뽕~ 쏘세요. 총알이 나가 귀신을 쫓을 겁니다. 가난하게 하는 귀신도 뽕~ 쏘세요. 불안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도 뽕뽕~~, 총알 앞에 다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요 14:20).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성령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하신 것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 승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의 기미가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휴전상태입니다. 그러나 귀신들과의 전쟁은 휴전도, 종전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쭉~ 실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있지는 않은지, 돈 없는 빈 지갑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나를 살피고, 다시 기도의 줄을 꼭 잡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7~1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하나님께 맡깁시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는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근심, 걱정, 분노는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정은 여아가 극한 대립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주말이면 양측에서 대형집회를 열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기고 분노를 표출하며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방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큰 아픔이 됩니다.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

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물고 뜯기 보단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비방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비방하며 싸우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이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호 비방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정권을 잡아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부화뇌동하는 자는 우매한 자입니다. 분노로 일하지 말고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상호 이해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서로를 비방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성경에세이 ::

소낙비는 피해가라

여보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했는지 여름철 소낙비가 잦네. 갑자기 하늘이 뽕뿔린 것처럼 비가 쏟아붓다가 몇 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맑아지곤 하네. 이럴 때는 굳이 우산을 사러 뛰어가거나 카페로 피신하지 말게. 잠시 지하철 입구나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게. 곧 그치니까. 장맛비도 기다리면 그치는데, 소낙비인들... 잠시 피하고 있으면 되네.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부가 있네. 이 부부는 서로에게 골이 깊어서 자주 격하게 싸우곤 했지. 나는 그 부부에게 “싸울 기미가 보이거든 누구든 먼저 피해라. 잠시 기다리면 소낙비는 그치게 되어 있다.”고 신신당부했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면 내 말이 생각이 나겠는가. 결국 서로 맞받아 싸우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지. 잠시 피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보게!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라. 괜히 나뭇잎 쓸지 마라.”
내가 어느 선교사에게 한 말이네. 바람이 부는데 굳이 마당을 쓸 게 뭐람. 바람 불

때 나뭇잎 쓸어봐야 먼지만 나고 말짱도 루룩 아니겠나. 바람이 불 때는 핑펑김에 쉬어가면 좋네.

주전자가 뜨거우면 식을 때까지 잠시 가만둬야지, 굳이 그걸 만져서 손 데고, 주전자를 놓쳐서 사방에 뜨거운 물이 튀어 데일 필요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을 때 잠시 몸을 숨기셨다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요11:54).

‘사나이 대장부가~~’, 이러면서 나가서 비 맞아봐야 자네만 감기 걸린다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야.

일이 꼬이거든 잠시 내려놓고 여행 좀 다녀와서 다시 하게. 넘어졌는가? 넘어진 김에 잠시 쉬어 가게나. 화나는 일이 있나? 문 열고 나가 크게 호흡 한 번 하게. 그러면 소낙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뜰 거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엡5:15).

봉우

:: 오늘의 메시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한 청년이 언덕마루에서 영영 소리 내어 울고 있다. 지나가던 노인이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물었다.

청년이 대답한다. “제가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껍달을 보니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적혀 있어서요.”

그러자 노인이 껍껍 웃으면서 말한다. “뭘 그깟 걸 가지고 그리 울고 있나? 30번만 더 넘어지면 되겠네.”

노인의 말처럼 30번 넘어지면 90년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소망도 없어지게 된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그 때마다 다시 일어선다면 미래와 소망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

러지느니라”(잠24:16).

세상은 몇 번 넘어졌는가를 세고 있지만, 하나님은 몇 번 일어섰는가를 세고 계심을 기억하자. 삶에 벌어지는 문제는 방향 표시는 될지언정 멈추라는 정지 표시는 될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는 순간 실패자가 될 것이다.

목사님은 올해 ‘전대미문의 복을 받아보자’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신년 1월 1일 수요일에 ‘포기하는 것은 자살과 같다’는 주제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전진하자.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sudden2000@naver.com

예수중심교단 전국 목회자세미나

시간 : 3월 17일(월) ~ 19일(수)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 02. 533. 9191

:: 생명의 말씀 ::

경건한 삶

모인 사람들이 족히 100명은 넘을 것 같았다. 행사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자 나는 큰 소리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들은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책임자인 듯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도덕성과 상식을 거론하며 항의했고, 나는 ‘내가 목사라서 그런다’며 더 크게 대답했다. 행사장이 소란스럽게 되자 나중에는 당황하며, ‘곤란해하는 우리 성도를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얼마 전 홍보관에서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홍보관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면 화장지나 계란 등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약들과 제품들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피해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우리 성도들이 겪은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4천만 원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은행경호원의 제지로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그 충격이

아주 오래 갔다. 권사님 한 분도 핸드폰에 온 문자를 클릭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120만 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모시고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노력했지만 보상도, 직접적인 해결방법도 없었다.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우리 교회에는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그런 자들이 받는 축복과 상급은 다비다(행9:36)와 고넬료(행10:31)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노인들은 거기에 편승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실을 악용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자들이 있다. 교회는 이런 자들에게서 약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을 어려운 중에 돌보는 이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이니 말이다.

장순천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내가 매일 기쁘게 ::

맞춤형 시대의 함정

우리는 맞춤형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커 피나 샌드위치 전문점만 가도 소비자 선호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주고,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클릭을 분석해 비슷한 유형의 좋아할 만한 내용을 계속 추천해주지요. 이러한 맞춤서비스는 마치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고, 심리적인 저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낯선 것을 접하고, 다소 불편한 것을 참아보며, 다른 시각을 배우는 넓은 그릇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정보만 편식하니 나만의 울타리에 갇히는 '맞춤형 시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내게 필요한 말씀에만 '아멘'하며, 자기 원하는 것만 말하는 기도를 하고, 다른 교류 없이 예배만 왕복하는 편함은 자칫 '내가 왕인 신앙'에 갇힐 수 있지요. 때문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내게

꼭 맞는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맞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 부르지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즉 원함(want)이나 필요(need)를 버려야 하니까요. 말이 어눌하여 지도자가 되는 것이 싫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길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도피의 삶을 지속한 다윗도 시편에 수많은 괴로움을 표현했으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39)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역시 철저히 자신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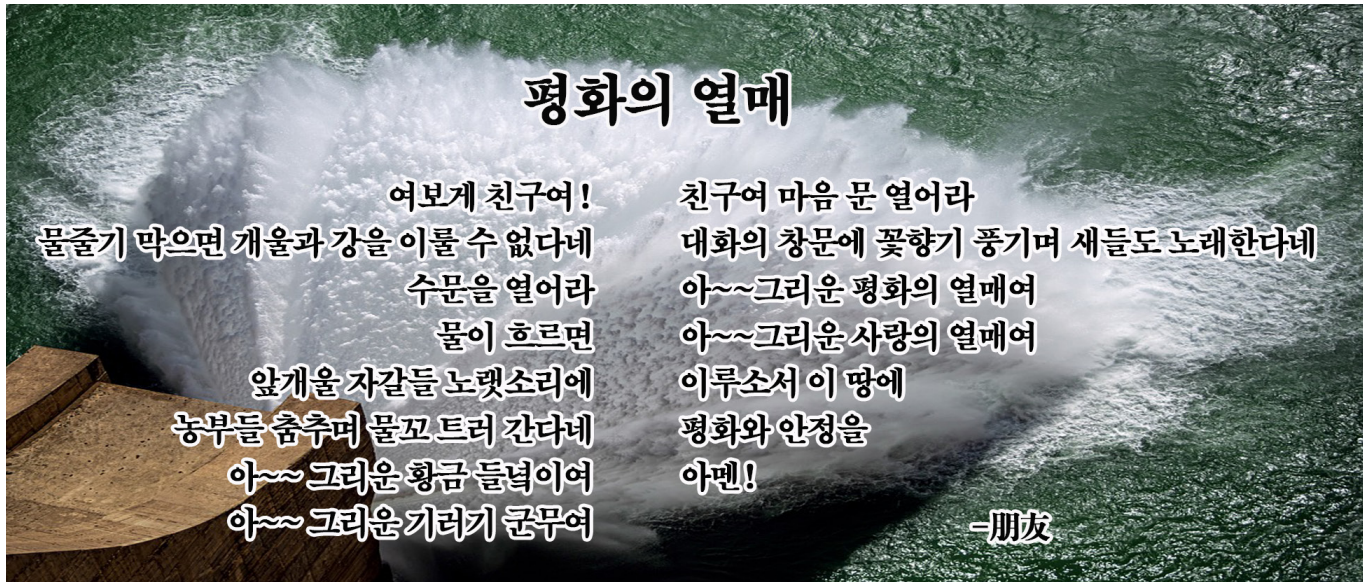
하지만 결국 그 순종의 대가는 자신의 편함을 좇아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가

져왔습니다. 평범한 유목민으로 자신의 삶만 돌봤을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노예생활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여정의 주역이 되었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왕이 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으며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물려줄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영적인 귀를 열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녀로 성장합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평화의 열매

여보게 친구여!
물줄기 막으면 개울과 강을 이룰 수 없다네
수문을 열어라
물이 흐르면
앞개울 자갈들 노랫소리에
농부들 춤추며 물꼬 트리 간다네
아~~그리운 황금 들녘이여
아~~그리운 기러기 군무여

친구여 마음 문 열어라
대화의 창문에 꽃향기 풍기며 새들도 노래한다네
아~~그리운 평화의 열매여
아~~그리운 사랑의 열매여
이루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아멘!

-朋友

기도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 2시간만 기도하면 네 삶에 장애물이 없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정말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할까요? 하루에 기본 4시간, 집회 때는 7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아도 기도할 거리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국내외 교회들을 돌보시는데 늘 기도 거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을 뜻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하려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바, '기도하는 자의 삶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이와 같

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겐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더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세계교구란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더니 언어의 장벽도, 문화적 차이도, 여권, 비자 등 각종 법적인 문제도 그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하며 달려가셨습니다.

교구 전도사로 발령을 받고 보니 제 나이가 성도님들의 자식뻘, 많게는 손주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앞에서 연소함을 보이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 못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기

도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게 만들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마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당신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앞에 전대미문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 힘쓰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5시에 온 일꾼

마태복음 20장 1~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여 하루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후에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더 많은 품꾼을 고용합니다. 하루가 끝나자,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품꾼에게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새벽부터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자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누군가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10시간 일하고도 동일한 10만 원을 받는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남들은 10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1시간 일하고 동일하게 받았으니 완전히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새벽부터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면, 10시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새벽부터 일한 나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